

2017년 국가직 추가 채용 9급 한국사 나책형

해설 :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1. 정답 : ④

밑줄 친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이다.

④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등이 있다.
① 농경과 목축이 처음 시작된 것은 신석기 시대이다. ②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물을 얻기 쉬운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③ 대전 용호동 유적은 중기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2. 정답 : ①

(가)는 4세기 소수림왕 대의 사실로, 소수림왕은 372년에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했으며 373년 율령을 반포하였다. (나)는 5세기 장수왕 대의 사실로,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고 475년 백제 위례성을 함락시켰다.

① 342년 고국원왕 대 선비족이 세운 국가인 전연의 모용황의 침입으로 고구려의 수도가 함락되기도 하였다.
②, ③ 광개토 대왕릉비에 의하면, 왕은 서쪽으로 후연을 격파하여 오랫동안의 숙원이던 요동 확보를 재확인하였고, 동북으로 숙신을 복속시켰으며,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여 임진강 유역과 한강 이북까지 진출하였다. ④ 광개토 대왕은 신라 내물왕의 지원 요청으로 5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신라를 구원하였다(400).

3.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1260년 고려 원종과 원 세조 사이에 맺어진 강화 조약이다.

③ 쌍성총관부는 1258년 철령 이북에 설치되어 공민왕 때 무력으로 수복(1356)되기까지 유지되었다.

①, ② 1274년 여·몽 연합군이 1차 일본 원정에 실패한 이후 원은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1280)하고 2차 일본 원정(1281)에 나섰으나 실패하였다. ④ 충선왕은 충렬왕 대의 문한시를 사림원으로 개칭(1298)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등용하여 왕명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4. 정답 : ④

『안동 권씨 성화보』는 1476년(성종 7)에 간행된 안동 권씨의 족보로, ‘성화(成化)’라는 명칭은 간행 당시의 중국 연호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존하는 우리나라 족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④ 조선 전기까지는 자손들이 번갈아 제사지내는 윤회 봉사와, 외손이 제사를 지내는 외손 봉사가 행해졌다.

① 남성이 결혼 후 바로 친가에 거주하는 친영 제도의 정착은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확립된 17세기 이후이다. ② 조선 전기에는 자손이 없으면 족보에 무후(無後)라고 기록하고 양자를 들이지 않았다. 대를 이을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 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③ 조선 전기까지는 자녀들을 출생 순으로 족보에 기록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선남후녀(先南後女)에 따라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딸을 나중에 기록하였다.

5. 정답 : ③

밑줄 친 ‘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혁파한 신문왕이다.

③ 통일 신라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문왕 대에 통일 이전의 체제를 확대하여 9주 5소경을 설치하였으며, 군사 제도를 중앙군인 9서당과 지방군인 10정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왕을 중심으로 한 군사권을 강화하였다.

① 관리들의 독서 능력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채용하는 독서삼품과의 실시(788)는 원성왕 대의 사실이다. ②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722)한 것은 성덕왕 때의 사실이다. ④ 경덕왕은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추진하여 757년에 지방 9개 주의 명칭과 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고, 759년에는 중앙 관부의 관직명도 모두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6. 정답 : ④

밑줄 친 ‘이 나라’는 삼한이다.

④ 삼한은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발달하여 5월 수릿날에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10월 계절제에 추수를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다.

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를 배상하는 1책 12범은 부여와 고구려의 법률이다. ② 고구려는 산악 지대에 형성되어 비옥한 토지가 부족하였고 이에 약탈 경제를 통해 얻은 자원을 부경이라는 창고에 저장하였다. ③ 동예는 특산물로 과하마, 반어피, 단궁 등이 유명하였고, 누에를 이용하여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7. 정답 : ①

공주 명학소의 난이 일어난 시기는 무신정권기이고 응방의 설치의 원 간섭기의 사실로, 넓게 보면 고려 후기 사회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① 고려 후기 권문세족층은 동성혼과 근친혼으로 광범한 혈연관계망을 구축하고, 이중·삼중으로 중첩관계를 형성하여 강력한 유대관계로 결속하면서 국가체제에 심각한 폐단을 일으켰다. 이러한 폐단과 관련하여 충신왕 대에는 제상지중 15개 가문을 정하면서 근친혼 금지를 공포하였고 공민왕 대에는 이성 6촌까지의 근친금혼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또한 공양왕 대에는 근친혼 금지를 강화하여, 이를 어기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진출의 제한뿐만 아니라 과전을 추탈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는 왕실 내에서의 족내혼(예를 들어 공민왕 대 동성인 왕씨의 여성과 혼인했다는 기록이 있다)이 여전히 이루어지긴 했으나 법제적으로는 족내혼을 규제하는 추세는 서서히 강화되어갔다고 이해

해야 한다.

②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인 향리는 통혼 관계나 과거 응시에 있어서 귀족과 차별이 없었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의 문무반이 될 수 있었다. ③ 고려시대에는 부녀자의 재혼이 상당히 자유롭게 행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고려 말에 이르러 재혼을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부녀자들의 재가가 규제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사』 형법지에 따르면 공양왕 원년(1389)에 6품 이상 양반부녀(兩班婦女)의 재가를 금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④ 고려 후기에는 향·소·부곡 등 특수 행정 구역의 주민들이 공을 세우거나 하면 일반 주현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몽골의 침입을 격퇴한 다인철소가 익안패현으로 승격되었다.

8.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인조 대 청이 군신 관계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청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 윤집의 상소문이다.

② 조선 내에서 주전론이 우세하자 병자호란이 일어났으며, 병자호란의 결과 청과 군신 관계를 체결하였다. 청과 형제의 맹약을 맺은 것은 정묘호란의 결과이다.

① 병자호란 이후 청에 인질로 끌려간 소현 세자는 청의 수도에 머물면서 서양인 선교사 아담 샬과 교류하며 천문학과 천주교 서적 등을 접하였다. ③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북수설치와 화이론을 명분으로 북벌론이 전개되었다. 효종 때에는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④ 조선이 청과 군신 관계를 맺자 이에 반발한 선비들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연호인 ‘숭정(崇禎)’을 따서 스스로를 ‘숭정처사(崇禎處事)’라고 일컫거나, ‘대명거사(大明居士)’라고 하며 벼슬을 거부하고 은둔 생활을 하였다.

9. 정답 : ④

(가)는 1960년대의 출산 제한 정책에 따른 표어, (나)는 1970년대, (다)는 1980년대의 표어이다.

ㄱ. 군사 정부가 추진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에서 1966년까지 추진되었다. ㄴ. 1972년 10월 유신 체제가 성립되었고, 1978년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해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큰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다. ㄷ.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유가·저달러·저금리(3저 호황)로 물가가 안정되고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철강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또한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실시되었다.

10. 정답 : ①

제시된 사료는 1926년 발표된 정우회 선언으로,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는 신간회(1927)이다.

① 신간회는 조선인 본위(중심)의 교육 제도 실시를 주장하였으며, 1929년 일어난 원산 노동자 총파업 등 각종 노동, 농민, 청년 운동 등을 지원하였다.

② 1919년 만수 길림에서 결성된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다. ③ 1922년 설립된 민립 대학 기성회에 대한 내용이다. ④ 1922년에 평양에서 결성된 조선 물산 장려회에 대한 내용이다.

11.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세종 11년(1429) 정초, 변효문에 의해 편찬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인 『농사직설』 서문이다.

① 『향약제생집성방』은 조선 태조 대 간행된 의서로서 세종 대의 『향약집성방』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

② 『향약집성방』은 세종 15년(1433) 유효통, 노중례 등이 편찬하였으며, 중국의 당·송·명나라의 의서를 참고하고 우리의 자주적인 전통 의약법을 종합하여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정리하였다. 이로써 15세기에 는 조선 의약학의 자주적 체계가 마련되었다. ③ 『향약채취월령』은 월별로 채취해야 할 약재를 기록한 것으로서, 이는 보다 완벽하게 향약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향약의 개발과 보급으로 구하기 쉽고 값싼 약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환자를 구하게 된 것은 물론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 의학 발달의 자주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④ 『의방유취』는 세종 27년(1445) 왕명에 의해 의관 전순의 등이 완성하였으며, 한계희 등이 정리하여 성종 8년(1477)에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153종에 달하는 중국 의서와 국내 의서를 부문별로 정리한 의학 백과사전으로 우리나라 한방 의학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 놓았다.

12. 정답 : ①

ㄱ. 발해 무왕은 장문휴의 수군으로 하여금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게 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ㄴ. 문왕 대인 756년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북쪽의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ㄷ. 대조영 대 ‘발해군왕’으로 책봉을 받은 발해가 신라와 대등하게 인정받았던 시기는 당나라가 안사의 난 등으로 발해의 협조가 필요하던 시기인 발해 문왕 대인 762년이었다. 이를 통해 발해는 당으로부터 ‘발해군’이 아닌 ‘발해국’으로 인정받았으며 왕에 대한 책봉 작위가 ‘발해군왕’이 아닌 ‘발해국왕’으로 승격되었다. ㄹ. 발해 선왕은 건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게 되었다.

13. ②

②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노태우 정권 대인 1991년의 사실이다.

① 박정희 정권 때인 1972년 7월 4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남북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③ 김대중 정부 때 발표된 6·15 남북 공동 선언(2000)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④ 노무현 정부 때 발표된 10·4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 김정일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후, ‘중전 선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한반도 문제를 한 단계 진일보시킨 선언이다.

14.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1905년 체결된 을사조약이다. 이를 통해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었으며, 대한 제국은 이 조약의 체결로써 외교권을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의해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

③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촉발된 을미의병은 1896년의 사실로 을사조약 체결 이전의 사실이다.

① 정미 7조약 체결과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1907년 12월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여 13도 창의군이 결성되고 서울 진공을 계획하였다. ②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의병 활동이 대두되었다. 이 시기의 '을사의병'은 이전의 을미의병에서 나타났던 지역성, 학통성, 혈연성과 같은 한계를 극복해 가는 특징을 보여 준다. 또 의병을 주도하고 참여하는 신분층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즉 을미의병에서는 유생 의병장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문하에 있던 유생들을 이끌고 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을사의병에서는 신돌석(申堧石)과 같은 평민 의병장이 등장하고 농민층이 대거 의병에 참여하는 등 의병 참여층이 더욱 확대되었다. ④ 1909년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 호남 일대 의병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정미의병은 점차 소멸되었다. 이후 일부 의병은 간도 등 만주와 연해주로 근거지를 옮겨 항일 독립군으로 발전해 갔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5. 정답 : ③

③ 조선은 건국 초부터 토지의 개간을 장려하고 20년마다 양전 사업(量田事業)을 실시하여, 양안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① 고려 시대에는 개간을 장려하여 농민들이 새로이 개간한 땅은 일정 기간 동안 소작료를 면제해 주었다. ② 고려는 개경에 시전을 만들었고 국영 점포를 열었으며, 소(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먹, 종이, 금·은 세공품 등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여 공물로 바치게 하였다. ④ 경종 원년(976)에 시행된 시정 전시과는 광종 때 제정된자 삼(紫衫), 단삼(丹衫), 비삼(緋衫), 녹삼(綠衫)의 4색의 공복 제도를 기준으로 하고, 다시 문반·무반·잡업 등으로 나누어 노지를 분급하였다. 하지만 관등의 고하와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역분전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

16. 정답 : ④

제시된 자료 (가)는 1910년에 공포된 회사령, (나)는 1938년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이다.

④ 태평양 전쟁의 발발은 1941년의 사실이며,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인 1938년에 제정되었다.

① 일제는 회사 설립 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회사령을 1910년에 제정하여 일제는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자본 축적을 억제하려 하였다. ② 회사령은 1920년에 폐지되었다. 회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본 자본이 조선에 침투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다. ③ 1937년 7월 발발한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제는 군수 물자 보급과 노동력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통제와 동원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했다. 이 법률은 5월 5일부터는 조선에도 적용되었다.

17.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백남운이 지은 『조신사회경제사』의 서문이다.

② 백남운의 연구는 식민 사학에서 조선의 역사가 정체되었고(정체성론), 스스로 주체적인 역량으로 역사를 전개시키지 못하고 주변 외세의 힘에 의해서만 좌우되었다는(타율성론)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①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에 대한 서술이다. 그의 고대사 연구는 『대동역사』,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문화사』를 거쳐 『조선상고사』 저술을 통해서 완결되었다. 이러한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한 인물로 정인보 등이 있다. ③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던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과 관련된 서술이다. ④ 실증 사학에 대한 서술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병도, 이상백, 김상기 등이 있는데, 이들과 관련된 한국사 연구 학풍인 실증사학은 개별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순수 학술활동을 목표로,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사를 연구한 학풍을 지칭한다.

18.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에서 고려 시대 도교 기관인 '복원관'을 통해 밀줄 친 '왕'은 예종임을 알 수 있다.

③ 고려 숙종 대 김위제는 고려 초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의 저술들을 인용해 개경의 지기가 쇠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경을 저울에 비기어 개경(중경), 서경과 함께 남경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1104년(숙종 9년)에 남경 건설이 시작되면서 실현되었다.

① 예종 집권 초기부터 지방 농민들의 몰락과 유망이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종은 즉위 초부터 부세 감면 조치 등을 단행하였고, 속현에 감무를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② 예종 대 관학 부흥책의 일환으로 9재 학당을 모방하여 7개의 전문 강좌로 구성된 7재(齋)를 설치하였으며, 예종 11년(1116)에 문한(文翰)직과 대간(臺諫)직의 권한 확대, 경연 강화, 청연각·보문각 설치, 유교적 문물제도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교(新敎)를 반포하였다. ④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통해 숙종 대 별무반을 편성(1104)하였고 예종 대에는 여진족을 북방으로 내쫓고 동북 지방에 9개의 성을 축조하였다(1107).

19.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1949년 국회에서 제정되고 1950년 3월 시행령이 공포된 '농지 개혁법'이다.

①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친일파의 세력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좌절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은 특별 위원회 활동을 대법관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며, 반민법의 시효를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31일로 단축한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반민 특위는 해체되었다(1949. 8. 31).

②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0년 5월 30일의 사실이다. ③ 미국정부가 잉여농산물 채고 처리와 그것을 통한 대외군수물자 판매를 주목적으로 1954년 「농업교역발전 및 원조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PL(Public Law, 미공법) 480호」라고 불리는 법률이고 이에 근거한 잉여농산물원조를 「PL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라고 한다.④ 6·25

전쟁 시기 고급 장교들이 군수품을 빼돌린 권력형 비리인 ‘국민 방위군 사건’은 1950년 12월에서 1951년 3월까지의 사실이다.

20. 정답 : ④

ㄱ. 도결은 토지에 모든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선 후기 관에서는 농민에게 전세(田稅), 대동미, 지방에서 거두어야 할 군역세의 부족분, 향리나 지방관이 중간에서 취하여 생긴 환곡의 결손, 환곡의 이자인 모곡(耗穀), 기타 각종 부가적인 세금 등을 모두 토지에 부과 화폐로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 ㄴ. 도결은 신분제 붕괴와 화폐경제 발전에 따른 조세 수취제도의 자연스러운 변화 현상이었다. 군포와 환곡을 결(結) 단위로 거두는 것은 조세 부과와 신분적 차별성을 극복하는 것이었고, 조세의 금납화는 보다 넓은 단위의 지역별 결가 책정으로 지역간 수취 차별성 해소의 전망을 지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ㄷ. 도결에 따라 지방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세금을 거두고 부족한 각 세목(稅目)의 조절도 지방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각 아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수령과 아전은 자신들이 횡령한 관곡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토지에 세금으로 부과하기도 하였다.

ㄹ. 토지 1결당 4~6두로 조세를 고정한 것은 인조 때 실시된 영정법이고, 이후 효종 때 양척동일법의 시행으로 양전을 할 때 사용하는 자[尺]를 하나로 통일하였다. ㄺ.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 총액을 할당하여 군현 단위로 정해진 총액을 부담하는 제도는 총액제에 대한 설명이다.

海東韓國史